

〈書評：《李國鼎先生訪問紀錄：臺灣科技政策發展》〉

Li Kwoh-ting (李國鼎) (2020).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The Reminiscences of K.T. Li* (李國鼎先生訪問紀錄：臺灣科技政策發展), interviewed by Su-fen Liu (劉素芬). (Taipei: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刊於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Science* 42(3): 761-766。(韓文)

서평: 리귀딩, 『리귀딩 선생 방문 기록: 대만 과기정책 발전』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66780>

張國暉 (CHANG Kuo-Hui)*

在台灣，自 1990 年起越來越多人譽稱李國鼎（1910-2001）為科技之父，也認為他是戰後經濟發展的奠基者之一。在他這本回憶錄中，透過他本人及訪談團隊間交叉考證他所珍藏的文件、檔案及工作記憶，彰顯出這些稱號並非過譽。李國鼎對台灣科技產業的發展，有著他人難以企及的影響力。李國鼎在書中除了詳細交代許多重要政策細節及人物外，也將這些政策之間的串接及演變清楚說明，篇幅頗豐。這些政策包括了政府在 1979 年發表的「科學技術發展方案」、同年在最高行政機關（行政院）內成立由國際人士組成的「科技顧問組」、隔年打造出「科學園區」（Science Park）、還有對 1985 年開始著手設立台灣積體電路公司計畫（TSMC）等，它們對台灣從 1980 年代起的高科技產業立下堅實基礎。

政府介入

這本回憶錄主要是李國鼎公職生涯的第二部曲，多論及了他從 1970 年代中期後參與科技產業政策的制定，直到他 1988 年公職退休為止。第一部曲則是在 2005 年所發表的另一本重量級回憶錄（732 頁），其內容主要關於他自 1950 年代到 1970 年代時參與財經政策的規劃。雖然這兩本回憶錄出版相距 15 年，但它們都是經同一個學術團隊處理，內容也都來自雙方從 1997 年至 2001 年（李國鼎過世前）的合作，兩本充分呈現及緊密接合了李國鼎的所有公職生涯。然而，在這本新出版的回憶錄當中，我們應可更清楚發現李國鼎對科技產業、經濟發展及政

* 國立台灣大學, changk@ntu.edu.tw

府介入的三位一體政策信仰。對他來說，政府介入又更是關鍵。

李國鼎主要是在 1976 年從財政部長退下而轉任政務委員後，才算是開始積極實踐這樣的政策信仰。前一年蔣介石剛過世，而蔣經國還正構築更穩固的政治實力，準備全面接班。雖然在蔣經國領導下辭任部長，但李國鼎也在他的允許下，在轉任行政院政務委員後，獲得規劃科技政策的空間。在當時的政治體制中，政務委員並未擁有實權，不過他在行政院內積極運作了「應用技術研究發展小組」（以下簡稱應技小組）。基本上，這個小組就是政府方的積極介入，促進了台灣後來接連的幾個重要科技產業發展。

科技政策的份量優於科學政策

為何李國鼎能使行政院中的一個小組發揮如此大的作用？背後的脈絡為何？他所使用的策略是甚麼？這是他在這本回憶錄中前三章企圖闡明的問題。在 1976 年當時，行政院新成立兩個小組：一是前述的應技小組，起初主要用來培養國內高級科技人才，另一則是「專技及職業訓練小組」，主要培育中低階工廠技術人才，分別由李國鼎及李登輝主導。在回憶錄中，李國鼎謙稱李登輝後來很快地「轉而從政」，陸續擔任了台北市長、台灣省主席及副總統等職務，使得李登輝的小組運作成果較有限，另外也因為李國鼎在孫運璿 1978 年繼任蔣經國（轉任總統）為行政院長後，得到孫的大力支持，才使得他的應技小組後來看來成果比較多（頁 62、67）。然而，真正的原因，應該在於李國鼎將他在 1953 至 1965 年任職行政院「經濟安定委員會」（以下簡稱經安會）的經驗，使用到應技小組的運作上，讓台灣的高科技產業得有基礎及後來的突破性發展。

甚麼是經安會？李國鼎的經驗又是甚麼？簡要說明如下。國民黨政權在 1949 年整個來到台灣後，直到 1960 年代中期，相當倚賴美國援助。由於美方並不充分信賴國民黨政權，為使大量資源獲得適當運用，而要求在行政院中成立「美援運用委員會」，其討論及文件都採英文，以便美方人員主導。國民黨政權為此在 1953 年對應地成立了經安會，由它統籌國民黨政府需求後，再帶到「美援運用委員會」與美方討論。經安會主要是任務編組，專任人員不多，相當彈性而較沒有官僚體制的束縛。李國鼎是在經安會成立之初，就受邀擔任高階主管，他與其他同事的晉用未受太多法令限制，且為與美方有效合作，運作起來也就比傳統政府機關更講究效率。

一般認為，前述這樣的經濟政策運作，為台灣在 1960 年的發展初始階段起了重要作用。歸納起來，其中的政策關鍵在於：相對的體制外、由高層主導規劃、密切的國外（主要是美國）接觸等。李國鼎在 1976 年後運作的應技小組，就充分應用了這些關鍵特色，特別是在回憶錄的第二、三章呈現出來。首先，在「相

對的體制外」方面，它主要由相關內閣部會派員兼任，專任成員不多，但還是擁有正式組織身分，而得獨立對外與其他部會溝通協調。

其次，在「由高層主導規劃方面」，即便當時在行政院中已有相當於內閣部會層級的「國家科學委員會」，李國鼎仍認為在行政院本部中的應技小組應該協調它與其他部會（如經濟部及交通部）的科技發展政策。他點明由國家科學委員會主導的「基礎研究」應只分配 30% 的政府總體科技政策預算，其餘 70% 則投入「應用研究」（頁 7）。在國家如何整體地銜接基礎與應用研究方面，還有如何分配應用研究的方面，都可由應技小組從高層的角度來規劃，而這也就是由它所主導制定「科學技術發展方案」中的基本原則。簡單來說，這方案是就是一種國家最高施政方針。不過，在回憶錄第一、二章中，李國鼎也隱含了學術界對這樣安排的高度不安及不滿。

最後，回憶錄花了一整個第三章指出應技小組的「密切國外接觸」特色。在 1979 年「科學技術發展方案」頒布後，應技小組數個月內成立了一個完全屬體制外的「行政院科技顧問組」。最初，它聘了五位國外顧問，全是美國籍的科技業、工業及學術領導人，包括 Patrick E. Haggerty 及 Frederick Seitz，他們曾任 Texas Instruments 的董事長及董事，後者也曾任美國總統的科學顧問及 Rockefeller University 校長。另外，還有 Dow Chemical Company 董事長、New York University 的醫學院院長、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校長等。他們先到台灣參訪相關政府機構及產業工廠後，再一同在行政院當中與各部會代表開會，提出建議。直到李國鼎 1988 年退休前，他一直都擔任科技顧問組的召集人，引以為傲。迄今，科技顧問組的會議仍每年進行一次。不過，在這 30 年當中，也有若干變化值得注意。例如，科技顧問人數越來越多，他們也不再只限美國籍，從 1980 年代初就有來自歐洲及日本的顧問。另外，科技顧問也慢慢地有本國籍專家，且近年來越以本國籍為主。

資通訊科技發展成果豐碩

李國鼎所主推的「科學技術發展方案」歷經修訂，在他退休前共涵括了八項台灣應重點發展的科技：資訊、生產自動化、能源、材料、光電、生物、肝炎防治及食品科技。雖然這八項並非在他任內就開花結果，也非都成效良好，但資訊及自動化這兩項可說一開始就有顯著成果，他卸任後更繼續成功發展。回憶錄的後半，亦即第四到七章中，便以這兩項的篇幅最多。李國鼎的重點成就有三個：協助設立 Science Park、協助成立 TSMC、開辦資訊工業策進會（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III）。

首先，在李國鼎參與之前，內閣部會層級的國家科學委員會即已嘗試推動

Science Park，它很類似工業園區，只不過強調引進技術密集的產業。然而，這項政策遭到經濟部的抵制，因為這侵犯了他們產業政策的業務範圍。由於李國鼎的政務委員身分協助，讓經濟部接受了 Science Park 政策。其次，在 TSMC 方面，李國鼎也對公司的出資及經營方式提出關鍵見解，使當時未曾有的晶圓代工產業概念得有機會實現。最後，III 則是有效地幫助政府行政部門將業務資訊化，大幅節省人力及增進行政效率。雖然 III 逐年來不斷受到批評，但它一開始即採用李國鼎的意見而以財團法人方式成立，使得它迄今仍有彈性，得因應時代需求進行轉型。

基本上，李國鼎並不認為台灣應採韓國模式般重視大型企業的角色（頁 407-8）。他另有洞見地主張科技產業應由政府先帶頭介入，再由民間中小企業主導經營，並再進一步在產業中衍生更多企業。李國鼎的科技政策理念可說是自始一貫，成功地引導台灣高科技產業從 1990 年代後的迅速成長。

國際比較

李國鼎生前著述不斷，除了兩本回憶錄外，發表的中英文文章累計逾千篇，在回憶錄的末章，他也對當時的台海兩岸、國際財經情勢、甚至是南北韓交流發表看法。基本上，他可說是個終身思考、觀察及記錄的領導人物。環顧世界，除了美國之外，李國鼎可能最關注韓國及日本的經濟發展。李國鼎推崇日本科技的先進，但他更想研析的是究竟政府該如何介入科技及經濟政策才是適當且有成效？他不斷琢磨韓國的發展狀況。

從 1960 年代起，李國鼎就特別注意美國如何援助韓國，而韓國政府的政策又是甚麼？當韓國科學技術研究院（KIST）成立後，李國鼎就嘗試催生台灣版本的機構，後來也如願協助設立了工業技術研究院（ITRI）。這兩個機構或許有著許多共同的故事可以比較。1980 年代後韓國在高科技產業上的成就，也著實吸引了李國鼎的注意力。不過，1984 年時，當他的知己，也就是時任行政院長孫運璿離任後，他也自承「不再投入那麼多心力」（頁 167），或許帶著若干無奈。然而，透過回憶錄，可發現他留下的科技政策資產已是遠超過豐富了。

서평

리귀딩, 『리귀딩 선생 방문 기록: 대만 과기정책 발전』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2020). [李國鼎, 『李國鼎先生訪問紀錄: 臺灣科技政策發展』 (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20).]

장귀휘(張國暉)†

대만에서, 1990년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리귀딩(李國鼎, 1910-2001)을 과학기술의 아버지라고 찬미하고, 또 전후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의 이 회고록은 그와 인터뷰어들 간에 교차 고증한, 그가 소장한 문건, 공문서 및 활동기억을 통해, 이들 칭호가 결코 과장된 칭찬이 아님을 보여준다. 리귀딩은 대만과학기술산업의 발전에 다른 이들은 따라잡기 어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리귀딩은 책 속에서 많은 중요한 정책의 세부 사항과 인물을 제시한 것 외에, 이 정책들 사이의 연관 및 변천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분량을 많이 할애했다. 이 정책들은 정부가 1979년 발표한 ‘과학기술발전 방안’, 같은해 최고행정기관(행정원) 내에 국제적 인사들로 이루어진 ‘과학기술 고문단’을 성립시키고, 한 해 걸러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를 만들고, 또 1985년 대만적체전로공사계획(臺灣積體電路公司計畫, TSMC) 설립에 착수하는 등, 대만의 1980년대 이후의 하이테크산업에 견실한 기초를 세웠다.

1. 정부의 개입

이 회고록은 주로 리귀딩의 공직 생애의 제2부로서, 그가 1970년대 중기 이후부터 과학기술산업정책의 수립에 참여하여, 1988년 공직 은퇴에 이르기까지를 많이 다루었다. 제1부는 2005년 발표한 또 다른 중량급 회고록(732)으로 그 내용

† 대만국립대학교, changk@ntu.edu.tw

이 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재경(財經)정책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이 두 권 회고록의 출판은 15년의 틈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학술팀이 맡았고, 내용도 모두 쌍방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리귀당 서거 전)의 협력에서 나오기에, 두 권은 리귀당의 모든 공직 생애를 충분히 드러내고 긴밀히 연관시켰다. 그러나, 이 새로 출판된 회고록에서, 우리는 리귀당의 과학기술산업, 경제발전, 정부개입이라는 삼위일체 정책신앙을 더욱 명료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말하자면, 정부개입이 더욱 핵심적이다.

리귀당은 주로 1976년 재정부(財政部) 장관에서 물러나 정무위원으로 전임(轉任)한 후에야 이런 정책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 1년 전에 장제스(蔣介石)가 서거했고, 장징궈(蔣經國)도 한창 안정적인 정치실력을 구축하면서 전면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비록 장징궈의 영도하에서 장관직을 사임했지만, 리귀당은 장징궈의 허락하에 행정원의 정무위원으로 전임한 후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할 공간을 얻었다. 당시의 정치체제에서 정무위원은 결코 실권이 없었으나, 그는 행정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응용기술연구발전소조’(이하 응기소조라고 약칭)를 운용했다. 기본적으로, 이 소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 개입으로서, 후일 대만의 잇따른 몇 가지 중요한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2. 과학기술정책의 무게가 과학정책보다 더하다

어째서 리귀당은 행정원의 일개 소조로 하여금 이런 큰 작용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는가? 배후의 맥락은 무엇인가? 그가 사용한 책략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가 이 회고록의 앞 세 장에서 설명하려 한 문제이다. 1976년 당시 행정원에는 소조 두 개가 새로 성립했다. 하나는 앞에 얘기한 응기소조로서, 처음에는 주로 국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기술 및 직업훈련소조’로서, 주로 중하 단계의 공장기술 인재를 육성했는데, 각기 리귀당과 리덩후이(李登輝)가 주도했다. 회고록에서 리귀당은 리덩후이가 후에 매우 빨리 “정치로 돌아서서”, 대북 시장, 대만성 주석, 그리고 부총통 등의 직무를 잇달아 맡는 바람에 리덩후이의 소조는 운용 성과에 꽤 제한이 생겼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 밖에도 쑤윈쥘(孫運璿)이 1978년 총통으로 전임(轉任)한

장장귀를 이어 행정원장이 된 후 리귀당은 쑨원쥬의 대대적 지지를 얻어서 비로소 응기소조는 훗날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62, 67).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당연히 리귀당이 1953년부터 1965년까지 행정원 ‘경제안정위원회’(이하 ‘경안회’로 약칭)에 임직했던 경험을 응기소조의 운용에 사용하여, 대만의 하이테크산업에 기초를 닦고 훗날의 획기적 발전도 있게 한 데에 있을 것이다.

경안회란 무엇인가? 리귀당의 경험은 또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전부 대만으로 온 후, 1960년대 중기까지 줄곧 미국의 원조에 많이 기대었다. 미국 측은 결코 국민당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대량의 자원획득을 적절히 운용하게 하려고 행정원에 ‘미원(美援)운용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했고, 그 논의와 문건은 모두 영어를 이용하여 미국 측 인사들이 주도하기 편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국민당 정권은 1953년 대응적으로 경안회를 성립시키고, 그것이 국민당 정부의 요구를 총괄한 후 다시 ‘미원운용위원회’로 가져가 미국 측과 논의했다. 경안회는 주로 태스크 포스로서 전임인력이 많지 않고, 상당히 탄력적이고 비교적 관료체제의 속박이 없었다. 리귀당은 경안회 설립 초에 이미 고위급 책임자 자리를 맡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와 기타 동료 인재들은 지나치게 많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또 미국 측과 효과적으로 협력했으며, 운용도 전통적 정부 기관보다 더 효율을 중시했다.

일반적으로는, 전술한 이런 경제정책 운용이 대만의 1960년대 발전 시작 단계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여긴다. 개괄하자면, 그 중의 정책적 관건은, 상대적으로 체제의 바깥에 있었던 것, 고위층이 기획을 주도했다는 것, 국외(주로 미국)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것 등에 있었다. 리귀당이 1976년 이후에 운용한 응기소조는 이 핵심적 특징들을 충분히 응용했는데, 특히 회고록의 제2장과 제3장에 드러난다. 우선, “상대적으로 체제 바깥에 있음” 방면에서, 그것은 주로 관련 내각 부처가 파견한 인력이 겸임했고 전임 구성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식 조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대외 및 기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었다.

그 다음, “고위층이 기획을 주도한 방면”에서는, 설령 당시 행정원에 이미 내각 부처급에 해당하는 ‘국가과학위원회’가 있었다고는 해도, 리귀당은 여전히 행정원 본부 속의 응기소조가 국가과학위원회와 기타 부처(경제부나 교통부 같은 것)의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과학위원회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예산 전체의 30%만 분배하고,

그 나머지 70%는 응용연구 방면에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7). 국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기초와 응용연구 방면을 접합시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응용연구 방면에 분배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응기소조가 고위층의 시각에서 기획할 수 있었고, 이는 그가 주도하여 제정한 ‘과학기술발전방안’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이 방안은 일종의 국가 최고 시정방침(施政方針)이다. 그러나, 회고록 제1장과 제2장에서 리귀딩은 이렇게 안배하는 것에 대한 학술계의 고도의 불안과 불만도 은연중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고록은 제3장 전체를 사용해 응기소조의 “밀접한 국외접촉”이라는 특징을 지적한다. 1979년 ‘과학기술발전방안’ 반포 후 수개월 내에 응기소조는 완전히 체제 외에 속하는 ‘행정원 과학기술고문조’를 성립시켰다. 최초에는 다섯 명의 국외 고문을 초빙했는데, 전부 미국 국적의 과학기술, 공업 및 학술 분야 영도자였다. Patrick E. Haggerty 및 Frederick Seitz는 일찍이 Texas Instruments의 이사장 및 이사를 역임했는데, 후자는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 및 Rockefeller University 총장도 역임했다. 그밖에 Dow Chemical Company 이사장, New York University 의과대학장,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총장 등도 있었다. 그들은 잇달아 대만에 와서 관련 정부 기구 및 산업공장을 방문한 후, 다시 함께 행정원에서 각 부처 대표와 회의를 열고 건의도 했다. 리귀딩은 1988년 은퇴하기 전까지 줄곧 과학기술고문조의 의장을 맡았고,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고문조의 회의는 여전히 매년 한 차례 진행된다. 그러나, 30년간에는 주의할 만한 약간의 변화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고문의 수가 갈수록 많아졌고, 더 이상 미국 국적에 한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초부터 유럽 및 일본 출신의 고문이 참여했다. 그밖에, 과학기술고문은 서서히 본국 국적의 전문가도 생겨서, 갈수록 본국 국적이 주가 되었다.

3. 정보과학기술 발전 성과의 풍부함

리귀딩이 주동적으로 추진한 ‘과학기술발전방안’은 수정을 거쳐 그의 퇴임 전에 모두 8개 항의, 대만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을 포함했다. 정보, 생산자동화, 에너지, 재료, 광전(光電), 생물, 간염 예방과 치료, 식품과학기술. 비록 이 8개 항은 결코 그의 임기 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는 않았고, 전

부 성과가 좋지 못했으나, 정보 및 자동화 두 항은 시작하자마자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고, 그의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고록의 후반 즉 제4장에서 제7장까지는 이 두 항의 분량이 가장 많다. 리귀딩의 중점적 성취는 셋이다. Science Park 설립에 협조, TSMC 성립에 협조, 정보산업촉진회(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즉 III)의 설립이다.

우선, 리귀딩이 참여하기 전, 내각 부처 층위의 국가과학위원회는 이미 Science Park 추진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산업단지와 유사하며, 기술집약적 산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는 데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부가 보아뒀었는데, 이것이 그들 산업정책의 업무 범위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리귀딩의 정부위원 신분 덕분에 경제부로 하여금 Science Park 정책을 수용하게 했다. 그다음, TSMC 방면에서 리귀딩은 회사의 출자 및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핵심적 견해를 제시하여, 당시 일찍이 없었던 웨이퍼(wafer) OEM산업으로 하여금 실현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촉진회(III)는 정부 행정 부문이 업무를 정보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도와, 인력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을 증진시켰다. 비록 정보산업촉진회는 해마다 부단히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시작하자마자 리귀딩의 의견을 이용해 재단법인의 방식으로 성립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력성이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귀딩은 결코 대만이 한국 모델을 채택해 대기업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407-8). 그는 따로 통찰력을 가지고서, 과학기술산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입하고 다시 민간 중소기업이 경영을 주도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속에서 더 많은 기업을 파생시켜야 하다고 주장했다. 리귀딩의 과학기술정책 이념은 처음부터 일관되며, 대만 하이테크산업의 1990년대 후의 신속한 성장을 인도하였다.

4. 국제비교

리귀딩은 생전에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회고록 두 권 외에, 중국어와 영어로 발표된 글은 누계 천 편을 넘는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당시의 대만해협 양안(兩岸), 국제재경(國際財經) 정세, 심지어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 까지 관점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평생 사고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영도

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를 둘러보고서, 미국 외에 리귀당은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리귀당은 일본 과학 기술의 선진성을 숭상했지만, 그가 더욱 연구분석하고 싶어 한 것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과학기술 및 경제정책에 개입해야만 적당하고 또 효과가 있는가였다. 그는 한국의 발전상황을 부단히 연마했다.

1960년대부터 리귀당은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원조하는지, 한국정부의 정책은 또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성립 후, 리귀당은 곧 대만판 기구의 탄생을 촉진하려 시도했고, 후에는 바라던 바대로 공업기술연구원(ITRI)의 설립을 돕기도 했다. 이 두 기구는 아마도 비교 가능한 많은 공통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하이테크산업에서의 성취도 착실히 리귀당의 주의력을 끌어들었다. 그러나 1984년 그의 지기(知己)이자 당시 행정원장이었던 쑨원췌의 이임(離任) 후, 그도 “더 이상 그렇게 많은 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167)고 자인하는데, 아마도 약간의 무력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회고록을 통해, 그가 남긴 과학기술정책 자산이 이미 그저 풍부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 최정섭(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연구교수)